



2006년도 한우개량농가 선진기술교육 성황리 개최



조병대 회장의 개회인사

본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북 남원시 소재 중앙하이츠콘도에서 장재영 장수군수, 임경철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강병무 남원축협장, 송제근 장수축협장, 장성운 전북한우협동조합장, 이두원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장, 김인필 경기북부한우협동조합장, 김상준 한우핵군육종연구회장, 우영목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협의회장, 이근수 한우협회전북도지회장 및 축산관계자와 한우농가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한우개량농가 선진기술교육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조병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우산업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 FTA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맞다 있지만 오늘 참석한 한우개량농가들이 우량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

는 품질 고급화에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우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조당 2두의 출품축이 모두 좋은 육질을 보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개체들이 서로 다른 육질의 능력을 보였다며 이는 우리가 종축개량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균일한 품질의 한우브랜드 및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한우개량이 수소 위주의 반쪽개량에 기인한데도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암소개량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한우농가도 일본의 번식농가처럼 2~3산에서 끝나는 번식이 아니라 10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고 기록에 좀더 철저를 기해줌으로서 개량의 효과를 빨리 가져갈 수 있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뒤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특별히 일본 기후현축산연구소에서 히다우의 개량을 위해 30여년을 연구와 기술보급에 힘써오다 퇴직하고 지금은 농가 컨설팅을 위해 나카마루축산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중에 계신 나카마루 데루히코 박사의 특별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날 나카마루 박사는 2시간에 걸쳐 히다우의 개량과 고급육 생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개량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의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의 협조 유지가 관건이며 또한 종모우의 혈통다양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카마루 박사는 기후현에서 히다우 개량을 위한 1단계로 '75년 히다우개량을 위한 계통고정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히다우 개량에 있어 본격적인 히다우의 계통을 잇게 한 그 유명한 종모우 "야스후쿠"를 당시 효고현에서 1천만엔에 송아지를 구입하면서 히다우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2단계사업으로 '81 육종가에 의한 히다우 개량이 시작되었는데 지육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육종가의 추정을 위해서는 비육농가의 협조 없이는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기후현에서는 암소에 대한 추정을 통해 근내지방도, 지육중량 등 실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육종가를 이용하면 객관적으로 종모우나 암소능력의 판정이 가능하며 암소의 선발/보유 수단, 지정교배의 지표, 우군이 가진 특징의 파악, 우군 개량결과와 객관적 평가 등의 장점이 있고 육종가의 실측치와 추정치의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카마루 데루히코 박사의 특별 초청강연

또 기후현은 히다우브랜드의 확립, 육질/생산성의 향상, 종우성의 개량, 신기술에 의한 육종의 효율화 등의 내용으로 '06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현재 히다우브랜드는 기존에 5등급(우리의 1등급)만 고집했었는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5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타 시보다 기후현의 히다우 지육가격 및 송아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히다우 혈통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는 농가들의 희망가격이 유지되는 것이며 관광객들이 기후현에 오면 히다우 쇠고기를 먹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날 나카마루 박사의 강연에 앞서 축산연구소의 서강석 박사의 "집단유전학을 이용한 한우개량기법"에 대하여 강연이 있었다.

서강석 박사는 발표를 통해 암소의 개량을 통해 개량의 극대화를 유도해야 하며 농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개량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개량은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한우농가 스스로를 위한 일로 농가검정 및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좋은 정액을 선택하는 것은 농가 스스로 개량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적에 알맞은 정액을



축산연구소 서강석 박사의 강연



선택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근친을 피하고 원하는 정액으로 보유한우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가 중요하다 하였다. 특히 현재 공급되는 보증 씨수소는 종합지수에 의해 1~3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형질에 따라 2등급이 1등급 정액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며 무조건 1등급만 선호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1일차 마지막 교육은 제9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종합우승한 강성선 농가를 컨설팅하며 장수한우를 지원하고 있는 장수한우사업단의 성영수 단장이 장수한우산업을 통한 장수군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성영수 단장은 장수군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의 한 곳으로 특별한 부존자원이 없어 새로운 소득산업을 창출해 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군이라 말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지역 순환농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 축산이 있다고 하였다.

우선 장수군은 순환원리에 기초한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내 물질순환/경·축간 순환, 품목간 소득순환/5·3프로젝트 추진, 인적자원순환/귀농자마을 선정, 자본의 순환(장수사랑 상품권), 도·농간 순환/순환농업시범마을 등의 내

용을 포함하는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축, 생존전략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현재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성 단장은 농업을 대물림하는 장수를 신활력 장수한우사업단이 이끌어 간다고 하며 앞으로의 장수한우 발전목표를 사육두수 5만두, 혈통등록율 100%, 1등급출현율 90%이상, 호당규모 33두, 두당생산비 80만원, 한우소득 351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수를 찾게 되면 이와 같은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장수군민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세계최고 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라는 프랭카드를 볼 수 있을 거라며 이런 곳에서 축산하고 싶으면 장수로 오라고 하였다.

둘째날 첫 교육은 한우의 번식을 향상 방안에 대하여 축산연구소 손동수 박사로부터 발표가 있었다.

손동수 박사는 번식에 있어 육성기의 사양관리가 중요한데 육성기에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는 것은 소화기관의 발달을 양호하게 하며, 번식우의 수명을 길게 하고 번식효율을 높여 매년 송아지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된다고 하였다. 특히 육성우의 과비는 수태당 중부 횡수가 증가하고 임신이 되었다더라도 유산, 조산 및 사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체지방



장수한우사업단 성영수 단장의 강연



축산연구소 손동수 박사의 강연

의 축적으로 유산의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분만 후 비유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 중에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및 외부의 급격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스트레스에 의한 손실은 임신초기 일수록 발생하기 쉽다고 하였다.

또 손박사는 임신우는 태어나는 송아지의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분만에정일 4주전과 2주전에 로타바이러스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혼합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소의 발정 발현이 자정부터 새벽사이에 많이 발현된다고 아침에 조용히 축사에 들어가 소의 뒤를 살필 것과 새벽 일찍부터 발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 적기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발정이 발현된 개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보정후 외음부 주변을 깨끗이 씻고 70% 알콜 등으로 소독 후 수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윤식 한우개량부장은 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의 결과보고를 통해 “일본은 개량중심의 브랜드이며 3대 혈통정도만 확인해도 후대축에 대한 능력을 추정할 수 있어 농가에서 송아지를 구입하는데 제일 우선 조건으로 확인하고 있어 혈통중심으로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육질을 개선하는데 혈통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본 대회가 능력을 평가받고 개량하는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대회의 큰 취지이지만 2년여를

정성들여 키워온 만큼 경제적으로도 보상이 있으면 하는 마음을 접을 수 없는 것이 집행부의 큰 고민거리였다며 이번 대회 기간이 전 대회와는 달리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을 받아 홍수 출하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기여서 마음 고생을 하였는데 다행히 많은 곳에서 행사를 지원하고 협조해 주어 좋은 결과로 성공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하였다.

김윤식 부장은 이번 결과를 출품축의 종모우별 능력과도 비교 분석해 보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며 농가에서 계획교배할 경우 무조건 1등급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번식개체의 능력과 종모우의 능력을 잘 판단하여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협의회에서는 제11, 12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먼저 생년월일은 '06년 4월1일부터 5월31일생(11회)으로 하며 출하체중은 공판장 도착기준 600kg 이상, 출품두수 3두입식 2두 출품(11회)과 5두입식 2두 출품(12회부터), 생산지는 12회부터 출품농가 지역(시·군)에서 생산된 등록우로 한정, 11회 출품신청기간은 '07년 1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출품회비 60만원, 12대회부터 100농가를 기본으로 출품한정, 대회출품 신청 후 출하포기시 1회 출품제한(10회대회부터)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